



## 재외동포재단설립에 바란다.

김원삼/해외동포재단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지난 3월 10일 재외동포재단법이 역사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 헌법 2조 2항에는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해외동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기구가 부재한 상태였다.

재외동포하면 구한말부터 시작하여 일제통치하에서 조국을 떠나 북으로는 북만주로, 시베리아로, 남으로는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조국을 잃고 망명의 길로 조국광복의 꿈을 안고 독립투쟁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을 떠

나게 되었으며 제2차대전 후에는 분단된 조국의 슬픔을 안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전세계를 향해 떠나게 되어 지금 현재 해외동포는 전세계에 5백만이 흩어져 살고 있다.

그러나 낯설고 문화가 다른 타국 땅에서 살아가는 5백만 해외동포에게는 이민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으며, 특히 92년 4월 29일 LA흑인폭동, 6월 14일 시카고 흑인난동, 독립국가연합에서의 피난생활, 사할린 동포문제 등 세계 도처에서 당하는 해외동포들의 고난과 역경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하여 그동안 해외동포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뜻있는 목회자와 학자, 법조인, 지식인들로 해외동포연합을 결성하여 한국 정부에 교민청·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요청해 왔으나 여러가지 한국정부의 입장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해외동포 재단을 설립해 줄 것을 93년 4월

부터 요망해 왔다.

그러나 외무부에서는 계속해서 연구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할 뿐 움직임이 없어서 해외동포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세계화추진위원회(당시 정재문 위원장)에 제출하였으며, 정재문 위원장으로부터 해외동포를 돕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으며, 95년 7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의 실무자들을 소집,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대통령께서도 해외동포를 위하여 건국 이래 처음으로 청와대 비서실내에 교민담당 비서실을 신설하고 새로운 교민정책을 연구검토하고 있던 중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건의를 받고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외무부에 재외동포법안을 제정하도록 했으나 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법률 제정이 지연되다가 96년 10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

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정무 1 장관이던 김덕룡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생각한다.

96년 10월 28일 법안은 국회로 이송되었으며 국회상임위원회인 외무통일위원회에서 96년 11월 16일부터 심의하기 시작. 여야간의 공방이 맞섰으며 일부야당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을 설득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다.

그리하여 96년 12월 17일 제15차 외무통일위원회에 상정, 제16차, 제18차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가결되어 96년 12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노동법·안기부법 때문에 모든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가 지난 97년 3월 10일 역사적인 재외동포재단법이 여야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건국 이래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해외동포를 위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재단을 조직, 구성하고 운영해 갈때 바라고 싶은 것은 5백만 해외동포의 요망에 의해 설립되는만큼 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적합하도록 명실상부한 해외동포재단이 되기를 바란다.

구성자체도 민관이 참여하고 해외동포가 참여하는 재단이 되기 바라며, 재단을 운영해 갈 사람들도 정말로 해외동포를 사랑

하는 사람들이 운영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명실공히 이 재단은 해외동포들의 국내창구가 되어야 하겠고, 국내외 해외동포가 일체가 되어 민족장래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란다.

재단 설립을 위한 모티브는 해외동포들이 했으나 운영은 정부가 하는 것이므로 과거와 같이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재단이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해외동포를 위한 기구가 설립되는 것이므로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여 잘 운영해주기 바란다.

우리 해외동포도 한국정부의 도움만 요청할 수는 없다. 단 1불 씩이라도 모금하여 재단의 기금 조성에 동참하고 싶으며,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싶다.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하여 해외 한인사회가 활성화되고 이민사회가 성장하는 일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해외동포 5백만도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해외에서 재난을 당했을때, 이 민정책을 위해, 우리 2세들의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인종간의 교류를 통한 세계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기 바란다.

500만 해외동포는 국토의 연장이요, 민족문화의 확장이요, 민족자산의 증가가 될 것이다.

지난 3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은  
건국 이래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해외동포를  
위한 법안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 天地クラブ財務報告書

期間：1997年3月～8月

1. 総収入：¥88,000円

4月繰越し： ¥11,200円

年会費： ¥54,000円

社会人：¥3,000\*15人 = ¥45,000円

学生：¥1,000\*9人 = ¥9,000円

例会費： ¥23,500円

6月：¥500\*18人 = ¥9,000円

7月：¥500\*15人 = ¥7,500円

8月：¥500\*14人 = ¥7,000円

2. 総支出：¥47,110円

5月： ¥21,000円（「天池人文」複写費＋郵送費）

6月： ¥9,296円（「天池人文」複写費＋郵送費＋例会場所代＋飲料費）

7月： ¥9,054円（「天池人文」複写費＋郵送費＋例会場所代＋飲料費）

8月： ¥7,760円（「天池人文」複写費＋郵送費＋例会場所代＋飲料費）

3. 残高：¥40,890円

天池クラブ理事会

1997年9月20日

## 제 31 차천지구락부예회

이번 모임은 저의 원인으로 장소가 9월 28일 저녁 6시-9시 20분으로 변동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선 사과드립니다.

천지구락부가 정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무시작한지 이미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6개월간 이사분들과 동포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조직은 크나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예회는 지난 6개월간 진행하여 온 사무에 대해 총결짓고 새로운 단계 천지구락부의 이사선발과 금후 조직의 발전에 대해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회의는 우리구락부에 있어서 또 한차례의 중요한 회의로 될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우 다망하시겠지만 될수있으면 이번 회의에 꼭 참여 해주셔서 금후 조직의 발전과 이사선발에서 보귀한 의견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는 우리동포들의 발전과 교류에 뒤받침 될수있는 조직을 육성할수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時間 : 1997年9月28日(日曜日)午後:18時—21時20分

場所 : 東京都文京区区役所ビル4階会議室

地下鉄丸の内線後樂園駅から1分

日程 : 18時—18時30分	交流
18時30分—19時	過去事務總結
19時—20時	會員紹介
20時—20時30分	理事選挙
20時30分—21時	当選理事講話
21時—21時20分	自由議論
21時20分	休会